만나야 할 사람들

8월 15일의 역사적인 만남은 모든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일상을 함께 나누는 주위 인연들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주는 만남이다. 만나야 할 사람들, 가야 할 땅을 반세기 동안 가슴에 품고 그려오던 이들의 간절한 마음들이 여한 없이 풀릴 수 있길 발원해 본다. 말 그대로 빛의 날이 될 2000년의 광복절을 일주일 앞두고 망모의 슬픔을 안고 고향 땅 북녘으로 가게 될 장이윤 거사와 남녘으로 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수도화 보살을 미리 만나 보았다.

'평양가는' 장이윤 거사

109세 어머니 사망 가까이 가서 애도

"관세음보살." 살아 계신 줄 알았던 109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실신해 쓰러졌던 장이윤(70)거사가 깨어나며 긴 한숨처럼 토해낸 첫마디다. 북의 어머니 구인현씨를 만날 설레임으로 20일간을 영겁처럼 여기며 보내던 장거사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새벽마다 금수사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어머니의 건강만을 기도하며 그동안 선물로 가져갈 목걸이, 팔찌, 반지를 포장하며 귀에 귀걸이 구멍 뚫린 흔적이 있으면 우리 오마니라며 귀볼을 만져보고 품에 안겨 실컷 울겠다던 장이윤 거사는 본 기자와의 인터뷰도중 찾아온 적십자사 직원이 북에서 온 나쁜 소식이라는 말을 건네자 직감적으로 알아 차렸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나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고 민족의 비극이야." 장이윤거사는 병원응급실에 실려가 신경안정제를 투여 받았지만 쉽사리 안정을 찾지 못하고 간간이 잠에서 깨어나 이런 비극은 두번 다시 없어야 한다며 울음을 터뜨려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세월이 너무 흘렀다는 장거사의 절규는 고령 이산가족의 빠른 상봉을 촉구하는 듯했다.

어머니 품에 안기려던 막내아들의 꿈은 무상하게 사라졌지만 그러나 장이윤거사는 어머니의 땅 고향에서 또 한번 어머니와 관세음 보살을 눈물로 부르고 돌아올 것이다.

'아들이 서울로' 수도화 보살

50년 기도공덕 꿈같은 모자 상봉

내원정사에 살고 있는 수도화(88) 보살은 김일성 대학 교수인 아들 조주경(68)씨를 만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어릴 때부터 착하기만 하던 주경이가 어디서 뭘 하나 했는데 부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렇게 만나니 감사합니다." 수도화 보살은 무슨 말이든 끝은 꼭 감사하다는 말로 맺는다.

"들리는 소문에 다들 선물을 준비한다는 거야. 50년 동안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에미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어. 그래서 없는 형편이지만 선물을 준비했지." 수도화 보살은 아들에게는 금목걸이, 며느리는 금팔찌를 준비했다.

김영오 서구청장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해 달라고 건넨 손목 시계와 내원정사 주지 정련 스님이 준비해 준 보살의 사진 액자 등도 가져간다.

"50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고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하겠어. 짧은 시간 함께 하고 돌려 보내야 하지만 그래도 법이 그런 걸 어쩌겠어. 이렇게 살아서 만나보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짧은 만남이지만 50년 세월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몸으로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단 하루도 아들과 함께 하지 않은 날이 없었기에.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남과 북 마음 나누면 좋은 벗"

좋은벗들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심신수련' 열어
문경 정토수련원서 5일간…민간단체 첫 위탁교육

지난 9~13일 문경 정토수련원(원장 묘당법사)에서는 특별한 수련회가 열렸다.

이른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성수련'.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스님)이 북한 이탈 시점이 1년 미만인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간관계 수련 프로그램인 '나눔의 장'은 남북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남북교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위탁교육(행정자치부 민간단체 지원사업)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명칭과는 달리 첫날 일정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졌다. 예상과는 달리 15명의 신청자중 7명(여성은 3명)만이 참가했으며, 참석자들도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 통일부 산하의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나와 직장이나 대학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지만, 아직은 보호관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경계심이 적지 않았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 깊은 산골짜기에 온 것을 후회하는 이들도 있었고, 도대체 무슨 세뇌교육을 시키는지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들의 불안감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내 풀렸다. 지도하는 난승 법사(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장)의 솔직하고 편안한 진행으로 이내 긴장을 풀고, 서서히 수련과정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닫힌 마음과 각종 스트레스로 야기된 불안 및 억압심리를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안심입명(安心立命)과 원만한 대인관계의 원리를 터득하게 한다는 '나눔의 장' 프로그램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냈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한 느낌(무의식, 본래마음)의 교류를 통해 하나 되는 '좋은 벗'들이 되어 간 것이다.

난승 법사는 "나눔의 장을 통해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통합 과정에서 부딪치는 정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8~10월까지 4박5일 과정의 나눔의 과정을 매달 진행하면서 점차 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보완해 수련인원도 늘릴 생각이라는 난승 법사는 수련결과를 분석, 〈통일마당-심리수련으로 극복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심리와 남북한의 화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휴전이후 2000년 2월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1097명. 국내 거주자는 891명(사망 182명, 이민 34명)이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등에 의거해 사회적응교육시 초기 인성 심리상담, 정서순화를 위한 종교행사 실시 등을 권유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관심은 이제 시작단계다. 북한이탈주민 200여명이 종교·사회단체와 결연중인 가운데, 개신교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협조아래 80여명이 1가정 1교회 결연을 추진중인 것과 대비된다.

'통일이후의 북한 포교'란 화두를 던진 이번 수련회는 북한주민 포교가 공급자 위주의 주입식 포교가 되어서는 안되며, 정작 그들이 힘들 때 필요로 하는 정신적 양식이 되어야 함을 일깨웠다.

문경=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산청군 사찰 3곳 조직적 훼불

경찰, 용의자 석방 '빈축'

경남 산청군내 사찰 3곳에서 개신교인으로 추정되는 5명에 의해 조직적인 훼불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산청군 시천면 지장암과 천문암에서 30대 중반의 짧은 옷 차림의 여자 5명이 불상과 탱화를 부수고 산신각을 훼손했으며, 이에 앞선 10일전에도 청천암에서 불상을 파괴해 인근 사찰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산청경찰서는 현장에 있었던 봉고차의 차적조회 끝에 지난 5일 용의자인 양모씨의 신병을 확보, 조사를 벌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6일 일단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경찰서 관계자는 "범인이 어린아이 2명을 혼자 키우고 있고, 공범들을 한꺼번에 체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석방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나 죽으면 화장" 59%

보건사회硏 1천명 설문

화장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묘에 대한 수도권 주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1%가 자신이 사망했을때 화장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화장 후 처리방법으로는 62.4%가 '산이나 강에 뿌리겠다'고 답했으며 '납골당에 안치하겠다'(27.6%) '납골묘에 안치하겠다'(5.8%)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한명우 기자

"美 한국전쟁때 사찰파괴 배상"

불교인권위 사례조사

"미국은 한국전쟁시 사찰 파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

불교인권위원회는 (가칭)'한국전쟁시 미군에 의한 한국사찰 파괴 배상 추진위(공동위원장 진관, 지원)'를 구성. 9일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 사찰의 피해사례와 미군의 명령문서 등을 조사해 제네바 전범재판소에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6 25전쟁 당시 미국은 한국불교를 말살하기 위해 강원도와 지리산 일대에 계획적으로 융단폭격을 감행해 많은 사찰과 불교유적들이 파괴됐다"며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조선불교도연맹에게도 합동으로 배상청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두식 기자

"탑 관리인 원상회복"

문화부, 경북도에 공문

전북도와 진안군의 마이산탑 관리인 교체와 관련(본지 277호 23면 기사 참조), 문화관광부 박지원 장관은 3일 전북도지사 앞으로 공문을 내고 "마이산 탑사 탑 관리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장관은 공문에서 "귀 도 관내인 진안군에 소재한 마이산 탑사 경내에 조성돼 있는 석탑군의 관리자를 전라북도가 탑사 주지에서 진안군수로 교체한 것과 관련, 종단협과 태고종 등에서 신앙의 대상인 탑의 관리자를 관람료 배분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귀 도가 불교계의 의견에 대해 십분 참작 귀 도와 태고종이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동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포교 소책자를 나눠주고 있는 능인선원의 포교본부 회원들. "거리포교가 기독교식이라는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불교의 입지는 더욱 좁혀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능인선원 불자들 '거리포교'

역·터미널·등산로서 포교책자 나눠주며 불교인연 맺어주기

"부처님 법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절에서도 길에 나와 '전도' 하나요."

4일 오후4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10여 명의 능인선원(주지 지광) 신도들이 터미널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찾아서〉라고 적힌 소책자와 능인불교대학 홍보지를 나눠주자 관심을 보이며 건넨 말이다. 타 종교계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며 따라 다니는 것은 봤어도 불교계에서 거리에 나와 포교를 하는 모습은 생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능인선원의 활동은 요란하지도, 집요하지도, 강요함도 없다. 그저 여행객들이 흔히 사보는 신문같은 읽을거리이니 한번 보지않겠느냐는 가벼운 제안이 있을 뿐이다.

능인선원의 이같은 활동은 '오는 사람 마다 않고, 가는 사람 안 막는다'는 불교계의 정서와 소극적인 포교관행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포교방법이라는데 관심을 끈다.

능인선원은 지난 1월부터 한달에 3~4회 동서울버스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롯데월드 등산로 입구 등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활동의 원칙은 단정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로 종교단체의 거리활동에 식상해 있는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것. 포교 못지않게 불교계의 이미지 관리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다. 거리포교는 인근 휴지통이나 화장실을 둘러보며 버리고 간 홍보물을 수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불교책자가 바닥에 나뒹굴며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기이기도 하지만 그날의 활동을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포교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포교본부장 표금강궁 보살은 "사찰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인 포교에서 탈피, 직접 거리로 나가 일반 시민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바랑"을 메세요

■특허청 : 상표등록증 등록제 0472513호

▲B-1001 ₩40.000

▲B-1002 ₩35.000

▲B-1008(中) ₩25.000

▲B-1003(大)₩35.000

▲B-1004(小)₩33.000

■벙거지

<팔각>
▲B-1005 ₩20.000

<타원형>
▲B-1006 ₩20.000

<조리개, 끈>
▲B-1007 ₩20.000

※본 바랑 및 벙거지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사 ☎(054)636-6546/632-6546

입금계좌
외환은행 : 223-22-03071-5
농 협 : 061-17-001230
우 체 국 : 013805-01-001737

제조·판매원 천화무역(주) TEL. 02)449-8844,449-9100

■취급점 모집■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서울	건지불교사	02)739-3032	성불사	02)735-3543	제일불교사	02)735-0918	
	대북전	02)737-0969	이화불교사	02)720-1700	도선사매점	02)906-2279	
	구룡사	02)575-7766					
부산	부다가야	051)865-4383	고려불교예술원	051)807-6842	산사의꽃(법어사)	051)508-6300	
	시북불교연합회	051)205-4535	한세동승복사	051)842-6020			
대구	삼영불교전시관	053)425-4097	동화불교사	053)255-0784	봉은승복사	053)424-5462	
광주	금성상회	062)369-1937	태동불교액화점	062)224-6696			
대전	보문불교서점	042)257-0161	동해불교미술원	042)274-3727	대구승복사	042)254-8772	
경기	수원봉녕사	031)256-4127	수원포교원	031)253-1055	양평불교사	031)771-4747	
	구리한울	031)563-7554	이천고려한울	031)633-6023	용인성원불교한울	031)336-0337	
	의정부불교한울	031)842-8671					
경북	포항만여불교전시관	054)241-2402	영양게은동전사	054)682-9848	안동보리수불교사	054)854-2114	
	영주불교상회	054)632-2248	김천은혜사불교용품	054)433-4179	경주불교서점	054)749-1580	
	구미불교사	054)453-3077	상주불교상회	054)535-2474			
경남	진주관음불교사	055)743-4655	진주제일불교사	055)742-8174	마산불교종합전시관	055)255-6678	
	김해일광불교사	055)325-0780	창원경남불교전시관	053)295-8911	화풍월보정사	055)883-7771	
강원	원주금강불교사	033)743-7442	강릉관음불교사	033)642-8880	홍천마하불교사	033)434-8446	
	춘천동해불교사	033)256-9841	치악산구룡사팔라점	033)732-1216			
충북	충주구원불교사	043)846-8411	제천불교사	043)645-7517	청주불교만물사	043)258-4725	
충남	천안불교액화점	041)551-4765	조치원동양불교사	041)865-4544	공주백제불교사	041)855-5621	
전북	이리유기	063)855-3883	전주삼천각	063)274-6639	짚풀거북불교사	063)532-2996	
	남원불교사	063)625-0234					
전남	목포정혜원불교용품	061)243-2463					
인천	인천제일불교전시관	032)505-3661					
울산	대한불교전시관	052)260-6617					